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김 정 근*

<목 차>

- | | |
|-------------------|-----------------|
| I. 글을 시작하며 | III. 주제화 논의 |
| II. 사례(case)를 찾아서 | IV. 장서개발업무의 주제화 |
| —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야기 | V. 글을 끝내며 |

I. 글을 시작하며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물량적 힘이 종횡으로 판을 치는 이 어이없고 바보스러운 사회에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들을 건설해 냄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정보의 흐름에 권위(authenticity), 질서(orderliness), 유연성(flexibility)을 부여한다는 과제야말로 실로 지난한 일일 것이다. 처음부터 그것은 싸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듈다. 그러기에 이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과 관련된 제도와 전통의 확립이라고 하는 세계사 속의 ‘보편적’과제 가운데 하나를 20세기의 마지막 밤을 치새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구현해 내는 일이야말로 그것에 걸맞은 구도, 계획, 전술, 전략, 그리고 그것을 견인해낼만한 목적의식이 뚜렷한 인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당사자들이 주체답지 못한 괴상성을 노정하고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구나 그들이 용병처럼 남의 싸움을 대신 치듯 해서야 결과는 보나마나 일 것이다. 지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 학계나 현장 할 것 없이 이 힘겨운 싸움에 있어서 상황을 마주 보는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근접성(closeness)의 면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싸움자체는 우리가 우리 땅 안에서 치러 내어야 할 순 우리 몫인데도, 그러기에 거기에는 접전과 육박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정작 싸움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외국에서 온 그 무슨 군사고문관(military advisor)이라도 되는 듯 비조준성과 철없음, 그리고 전혀 상황에 맞지도 않는 ‘여유’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육박성의 부재, 철없음 그리고 바보스러운 태평(aloofness)을 최근에 우리 비즈니스의 한복판을 강타하고 있는 외풍의 요소에 직면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 학계와 현장의 대처방식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관련한 외풍문제를 예를 삼아 생각해보자.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들이 없으며 마치 미아와도 같이 혼내고들 있는가.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과 관련된 제도, 의식, 전통이 채 성립도 안된 이 마당에 그것들의 완성을 이미 전제로 해서 말해지고 있는 남의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만 있으면 어찌자는 것인가. 바닥에서 혼내고 있는 우리 현장의 현단계를 뼈대로 눈으로 보면서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사이버도서관(cyber library), 벽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walls) 따위나 말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찌자는 것인가. 그것 만이 중요하다고, 마치 살 길이 거기에만 있다는 듯 최대의 강조를 해대니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인지, 유행이나 타고난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언급자체를 말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대치(replacement)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추가(addition)와 보강(reinforcement)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하다면 이것은 에너지의 배분과 강조에 있어서 밸런스의 문제에 다름 아닌 것이다.¹⁾ 예를 들어보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그것이 문제시되는 사회의 경제정책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그 강조가 생필품 정책에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사치

1) 액세스, 오우너쉽, 자원공유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20 No. 1 (1994) 전권을 참조하라. 특집으로 다루어져 있다.

품의 생산과 수입에 치중되어야 되겠는가. 대답은 자명한 것일 것이다. 나는 여기서 도서관 문제의 당사자들이 '개척기'에 놓인 우리 현장의 현단계를 발견하는 일과, 그래서 '개척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대목에 크나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²⁾

대학도서관 장서의 문제는 그야말로 대학도서관 경영 자체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만큼 그 해법도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당사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인다. 사람들은 너무도 편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 든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장서문제를 액세스(access)로 풀려 든다. 무조건 전자매체에 뛰어든다. 집착과 열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는 입구는 있으나 출구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우리 현장의 현단계에 적합한 해결책이 액세스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안이한,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데서 나오는 입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우리 현장의 현단계에서는 오우너쉽(ownership)이 장서문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여 무조건 준거집단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미국에서조차도 그 내용을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액세스는 어디까지나 기본의 강화를 위한 보조의 위치에 세워 두어야 한다.

나는 튼튼한 실물장서(physical collection)의 소장이야 말로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의 현단계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관건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 글을 풀어 나가려고 한다. 이 같은 입장에 서서 보았을 때 대학도서관 업무 가운데 장서개발 업무와 그것의 '주제화문제'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왜 그 것들이 중요한지, 그것들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지난 12년 동안 나의 관찰의 대상이 되어 온 부산대학교 도서관 조직의 변화과정 속에서 조망해 보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서관은 이제 겨우 개척기에 놓여 있다고 보는 단계론적 시각에 대한 단적인 지지가 최근 한창 논의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간판네리기' 사건 속에 나타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전국사서협회소식(호외) (1995. 11. 10) : 전국사서협회소식(호외) (1995. 12. 20) : 이용재, "일부관장 자리보존 위한 도서관 조직개편 안될 법" 동아일보(1995. 12. 30)

II. 사례(case)를 찾아서 —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야기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국내의 여느 도서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사 규모의 국립대학 도서관과도 다른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물량적인 면, 통계 수치의 면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지적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한 조직이 개혁의 과정을 거쳐 그 체질에 변화가 일고 있을 때 우리는 ‘다름’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뜻에서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한국 대학도서관사상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냉엄한 이용자층의 비판과 그것에 조응하는 자기혁신의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조직이다. 그 비판은 1987년 가을학기에 시작되어 무려 3학기를 지속한 학생들에 의한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을 필두로 그 뒤 교수진과 대학본부가 가세를 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도서관 내부의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³⁾ 개혁운동의 발발시점으로부터 1995년 겨울까지 7년 반 동안 이 도서관은 여러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우선 사서진의 인력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개혁운동 당시 이 도서관에는 정식직원으로서 학사정사서와 이에 준하는 2급정사서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6명 있었다. 1995년 겨울 현재 그 숫자는 33명으로 불어나 있다. 그것은 신규채용의 방법과 기존 인원의 학사편입(광주대), 방통대 취학, 사서교육원 수학(계명대) 등의 채널을 통하여 가능해졌다. 같은 기간동안 석사인력이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으며 박사과정재학 인력이 2명 새로 생겨났다. 관리진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었다. 같은 기간동안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이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수 세 사람이 각각 약

3) 학생들에 의한 개혁운동과 도서관측의 대응노력의 전모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부산대학교 충학생회 등편,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자료집, 1987.9~1988.12(부산: 부산대학교 충학생회, 1989); 부산대학교 도서관, 도서관소식, 창간호(1989.4), 제2호(1990.3), 제3호(1992.8), 제4호(1993.2), 제5호(1993.6), 제6호(1993.11), 제7호(1994.12). 이하에 나오는 도서관소식은 모두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펴낸 것을 가리킨다.

2년간씩 부관장의 직책을 띠고 이 도서관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관장의 직책으로 또 다른 2년간 이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적이 있다. 같은 기간동안 어느 해 이 도서관은 두 사람의 캐나다인 도서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2주간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주로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문제에 관하여 모두 9회의 세미나를 가지게 한 적이 있으며⁴⁾ 그 다음 해에는 한 사람의 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3주간에 걸쳐 도서관전산화, 장서개발문제, 이원화 운영체제문제 등에 관하여 모두 10회의 세미나를 가지게 한 적이 있다.⁵⁾ 개혁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이 도서관의 사서진 가운데는 아무도 외국의 선진도서관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다. 같은 기간동안 이 도서관의 사서진 가운데 두 사람은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도서관에 파견되어 6주간의 전학과 연수를 받고 왔으며⁶⁾, 또 다른 두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도서관에 파견되어 역시 6주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온 적이 있다.⁷⁾ 또 다른 네 사람은 일본의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의 도서관 등에서 훈련을 받았다.⁸⁾ 이로써 이 대학의 사서진 가운데는 이제까지 모두 8명이 짧은 기간이나마 선진외국의 대학도서관을 보고 온 셈이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995년 겨울 또 다른 두 사람의 사서가 알라바마대학(University of Alabama)의 도서관과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 Austin)의 도서관에서 5주간의 연수훈련을 받기 위하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혁운동에서 시작된 부산대 도서관조직의 체질변화는 인력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료, 시설, 시스템의 운영방법에도 나타났다. 자료, 그 중에서 예산의

4) "캐나다 UBC직원초청 특별세미나 개최", 도서관소식, 제4호(1993. 2), pp. 113-114.

5) "부산대 도서관 외국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3주간 개최", 도서관소식, 제5호(1993. 6), pp. 152-153.

6) "사서직원, UBC도서관연수-1992년 9월 중순부터 6주간 파견", 도서관소식, 제4호 (1993. 2), p. 114.

7) "부산대도서관 사서직원 2명,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도서관 파견 연수", 도서관소식, 제5호 (1993. 6), p. 154.

8) 유익봉 등, "일본 도서관연수를 마치고", 도서관소식, 제7호(1994. 12), pp. 77-95.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자료의 수서는 입수가 더디고 가격이 비싼 데다 뒷거래의 잡음이 끊이지 않던 국내업자와의 입찰방식이 지양되고 외국으로부터의 직수입방식이 채택되었다.⁹⁾ 시설과 장비 면에서의 개선도 괄목할 만하다. 예를 전산 쪽에서 들어보자. 1987년 개혁운동이 일어날 당시 이 도서관의 전산시설은 전무의 상태였다. 1995년 겨울 현재 이 도서관에는 P/C 80여대, 워크스테이션 1대, 서버급 컴퓨터 2대와 그 부대시설이 들어와 있다. 지난 해부터는 교내 LAN이 설치되어 통신기반시설도 구축되었다. 정보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것이다.¹⁰⁾ 서지실의 변모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서양서 색인 초록지의 경우 개혁운동 당시 12종의 인쇄매체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37종의 인쇄물과 CD-ROM 9종에다 Dialog 등 온라인 서비스까지 들어와 있다.¹¹⁾ 운영체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도서관은 그 사이 새건물을 추가하여 국내 최초로 교수진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연구자들을 주고객으로 삼는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과 학부생들을 주고객으로 삼는 학습도서관(learning resources center : undergraduate library)을 양립시키는 이원화 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¹²⁾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완전개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혁운동 당시 이 도서관은 완전폐가제였다. 그 때 학생들이 그들의 주무기인 대자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부르짖던 일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 대자보¹³⁾

(1987. 9. 3. 일부)

- 9) 도서관자료의 '직수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19차 국공립대학(교) 도서관 정보화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1992. 8. 21-8. 22(부산대학교 도서관, 1992)에 실린 손정, "단행본 수집업무의 전문화문제" (pp. 19-35)와 신주영, "연속간행물 수집업무의 전문화 문제" (pp. 36-56)에 나와 있다.
- 10) 부산대학교도서관 전산실, "도서관 전산화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며", 도서관소식 제7호(1994. 12), pp. 31-54 :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우리 사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국 사서협회 창립5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경주 교육문화회관, 1995. 12. 3), p. 1.
- 11) 정현경, "P대학도서관의 서지조사실 : 1985-1995", 회기논고집, 제6집(1996), pp. 18-44. ; 김경숙, "서지정보서비스 어디까지 와 있나", 도서관소식, 제5호(1993. 6), pp. 93-107.
- 12) "연구도서관 개관", 도서관소식, 제7호 (1994. 12), pp. 74-76.
- 13)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등 편, 앞의 책, p. 3.

도서관에서 책 한권 빌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귀찮은 일인가. 우선, 카드상자 사이를 헤맨다. 원하는 책을 찾아서 대출을 신청한 뒤 최소한 30분이 지나야만 책이 나온다. 그러나 책이 나오더라도 그 책이 원하는 책일 경우도 있지만 서명과는 달리 원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도 있다. 또 책이 안나오는 경우도 많다. 도서관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는 책을 다시 빌리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지쳐 더이상 대출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는 나자신과 나의 동료들인 박인웅교수와 최정태교수가 서로 순서를 바꾸어 가며 부관장과 관장직을 맡아¹⁴⁾ 그 경영에 참여하며 또한 관찰도 하며 그것의 개혁을 도우려고 무진 애를 썼던 부산대학교 도서관조직의 변모를 헤아려 보면서 내심 그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격차에 놀라기도 한다. 7년 반의 시간 자체가 물론 만만치 않은 무게를 가지기는 하지만(나자신이 그 사이 48세에서 56세가 되었다) 우리가 확인하는 이 단일 조직내부의 변화란 실로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랴. 도서관은 여전히 낙후지역이다. 대학 속에서 여전히 천더꾸러기 되어 있다. 아무도 잘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너나 없이 돌을 던진다. 욕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의 성과가 이처럼 물량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학도서관은 여전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현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독자들은 내가 지금 소개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관련된 다음의 두 글을 읽어본다면 아마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첫번째 것은 한 익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장 앞으로 보낸 편지이다. 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4) 김정근 부관장, 1988-1989(2년간) ; 박인웅 부관장, 1990-1991(2년간) ; 최정태 부관장, 1994-1995(2년간) ; 김정근 관장, 1992-1993(2년간).

의명의 편지¹⁵⁾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들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고 세계의 앞선 기술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문용어도 철새없이 생겨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논문이나 정보들도 끊임없이 편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이런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부단한 노력과 전문적인 지식 및 나름대로의 know-how가 축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정보들과 자료를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난 뒤 외부로부터 얻고난 뒤에 느끼는 느낌은 차라리 허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연구도서관이 생기고 난 뒤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나 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은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담당자가 맡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조사가 연구의 기본과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2의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부산대학교의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과연 무엇이며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해집니다. 도서관의 규모만 크다고 하여 좋은 도서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고 갈 곳 없는 직원들의 집합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활수단의 장소로 제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져 왔고 그 운영방식 및 운영요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자랑이 될 연구도서관은 직업의식이 투철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연구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장서나 잡지나 모든 자료들이 살아 숨쉬는 듯한 긴박감과 첨단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 know-how가 바로 거기에 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구도서관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의 전체 발전을 위해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아주셨으면 하며,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아울러 자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5) “효율성있는 연구도서관이 되기 위한 바램”(1995). 미간본 서신자료.

두번째 것은 문헌정보학 교수로서 1994년 1월 이래 도서관부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태 교수의 발언이다. 최교수는 1994년 3월 24일에 있은 도서관직원을 위한 자체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교수의 발언¹⁶⁾

이로 말미암아 나는 도서관을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현장의 문제점을 더 깊게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오늘의 고민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도서관이 잘 하고 있는 점보다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고 청찬의 말보다 비판의 말을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자아비판하는 것은 내자신을 내가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도서관의 欺部를 내가 스스로 꺼내어 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어떻게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훌로 자기의 상처를 자기 혓바닥으로 훑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스스로의 육신으로 견드려야 하는 의지, 우리 대학도서관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저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숨찬 혓바닥을 내놓고 꾀_mac 한 상처를 훑고 있는 그 맹수의 분노와 괴로움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심장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물어봅시다. 지금 도서관이 제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간섭하며 못살게 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 네가 틀린 것이다”라고 용기있게 정면에 맞서서 대응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그동안 이룩한 눈에 보이고 손에도 잡히는 성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두 발언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이 있는

16) 최정태, “국제화시대의 대학 도서관이 설 자리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자평한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직원세미나 자료(1994. 3. 24)

것은 아닌가? 앞의 발언은 대학내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 본격적인 서비스의 기대를 거는 연구자층의 요구를 대변하는 듯이 보인다. 거기에는 이미 외국의 도서관이 준거의 틀로서 제시되고 있다. 뒤의 발언은 도서관 전문가의 관점이다. 동시에 그것은 전문직 관리자의 입장은 대변한다. 그러하기에 거기에는 '타는 목마름'과 안타까움, 접전성과 육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가시적인 성과란 실은 서비스의 내용성과 질을 담보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갖추었으되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도 부분적인 진실은 있는 듯이 보인다. 날림과 급조에는 부실과 하자가 따르기 마련인 이 사회의 평균치를 유지한 경우일까.

아무튼 도서관은 내외로부터 여전히 비판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어찌할 것인가? 도서관 문제의 당사자들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또 다시 전술과 전략의 심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우리들 자신의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상 이것은 불가피하다.

내가 대학도서관 전체 운영의 질적전환을 모색해가는 한가지 방법으로 '주제화'에 주목하고 그것의 한 갈래가 되는 장서개발업무의 주제화문제를 논제로 삼아 지금 이 글을 발전시키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주제화된(subject oriented) 장서개발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III. 주제화 논의

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발전에 있어서 지금은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

로 바꾸어 주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고 정리해 본다. 기준하는 직원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새 인력을 보강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7년 반 동안의 이 도서관의 인사관리는 대체로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산시설을 갖추고 서지도구를 마련하며 수서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 역시 이 도서관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익명의 이용자의 편지나 최정태 부관장의 자평에서 나타나듯이 전문성의 잣대와 성큼 앞서가는 이용자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그 정도의 변모를 가지고서는 도서관은 여전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상황의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듯이 보인다.

그럼 이제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했을 때 현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나는 그것의 실마리를 지난 7년 반 동안 이 도서관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색해 왔던 일련의 시스템 리엔지니어링적인 사고와 활동들 속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올바른 처방은 자기준거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나는 그것들이 특별히 도서관 전체 운영의 '주제화'와 그것의 일부가 되는 장서업무의 '주제화'에 관련된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그때 그때의 필요와 관내 구성원들의 창의력의 분출에 따라 시스템의 '주제화'와 관련하여 논의를 꾀고 담론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꽤 여전히 전의 일이다. 그동안 다소 파상적이기는 하였지만 논의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논의 뿐 아니라 일정 정도의 실천이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도서관의 구성원 대부분, 특히 의식 있는 인자들은 주제화를 수반하는 체계적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는 단계에 와 있으며 관련 정보도 꽤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만간 상황에 어떤 리더쉽의 요소가 들어온다면 곧바로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의 논의와 실천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주제담당사서제 도입

‘주제화’와 관련하여 이 도서관이 시도한 최초의 노력이다. 이것은 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의 두번째 해가 되는 1988년 당시의 상황에서 수서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질과 양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이 제도는 수서업무에 종사하는 사서들이 일종의 분업체제에 들어감으로써 주제적 전문성의 취약점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의도의 구현이었다. 여기서는 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80여개의 전공학과분야를 인문·예체능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4개 계열로 나누어 사서 1인이 한 분야씩 ‘담당’하여 계속적으로 선택정보를 입수하여 그것들을 전공학과에 제공하는 일을 하며 어떤 부분의 자료는 담당사서가 직접 자료선정 업무를 관장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선택정보자료 제공업무를 중심으로 학과로부터 추천받은 자료의 서지확인작업, 기본장서개발계획, 학술잡지타이틀 타당성조사 등 비교적 숙련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분야에 중점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제도는 1988년 아래 단행본 수서실에 도입되어 있으며 연속간행물실에는 1992년 아래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은 그다지 활성화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인력의 부족과 직원들의 잊은 인사이동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 도서관이 앞으로 장서업무를 더욱 전문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다.¹⁷⁾

2. 장서개발개념 도입

1987년 가을학기에 이어 1988년 봄학기동안 ‘도서관개혁운동’의 데모대가 대자보를 통하여 부산대 도서관의 장서에 대해 공격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공격을 받는 사서진 측에서는 이때 비로소 장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

17) “자료수집을 위한 주제담당사서제 도입”, 도서관소식, 제2호(1990. 3), pp. 19-25.

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행본과 저널의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장서구성에 있어서 사실상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공학과와 전공 교수진은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면 사서진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 앞에서 자각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서진은 결과물인 장서구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려면 원인행위가 되는 선정과 구입과정에서 자신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우침에 도달했던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의도성있게 체계적으로 균형을 갖추어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서의 질이 보장되며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 요구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사서진에 의하여 사서진이 중심이 되어,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자 그룹인 교수진, 석박사과정학생, 대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전체 장서구성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사서진에게 물어져도 무리가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서진이 주체가 되어 장서구성의 체계성과 균형성을 담보해 가는 과정을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장서개발 개념이 도입되려면 사서인력이 ‘주제전문화’ 또는 ‘주제분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와 필요성이 이 논의 속에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⁸⁾

3. 선택정보 제공

선택정보 제공업무란 외국도서의 선정이 대부분 교수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보다 양질의 도서와 최신도서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수들에게 선택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부산대학교에서의 도서 추천은 추천시기마다 각 교수연구실로 투입되는 서점목록이나 전문도서, 학술잡지 속의 인용문헌에서 선정하여 추천되는 경향이 있었기에 장서구성상 불균형 및 최신

18) 이상재 등, “단행본 수집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도서관소식*, 제3호(1992. 8), pp. 4-24 ; 유익봉 등,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도서관소식*, 제3호(1992. 8), pp. 25-45.

성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이와 같은 종래의 도서추천방식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하고자 세계의 주요서평지, 서지도구 등에서 나오는 선택자료를 교수들에게 제공하여 사서가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택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의 누락을 최대한 보완하며, 장서구성상의 균형과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1989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주제담당사서가 외국출판사의 출판목록과 Books In Print, Choice, Books For College Libraries, 「일본출판연감」등 서지도구에서 해당부분을 뽑아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서직이 도서관내에 주제전문사서가 없는 상황에서 장서개발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이 제도가 실시되어 오는 동안 많은 교수들이 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교수들이 도서관이 제공하는 선택정보에 의존하는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도서관이 시도하게 될 장서업무에 있어서 한차원 높은 사서주도성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우하우의 축적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⁹⁾

4. 기본장서개발계획 추진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장서구성의 체계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본장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 적이 있다. 1987년 가을학기에 시작한 도서관개혁운동이 3학기만인 1988년 가을학기에 끝이 난 상황에서 그 이듬해인 1989년에 이 아심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계획기간은 1989-1999 11년간으로 잡혔다. 이 계획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이 일정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 수서조직과 선정도구를 활용하는 체계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의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반성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도서관은 이

19) "선택(선정) 정보제공 업무계획", 도서관소식, 제2호(1990. 3), pp. 30-32.

계획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이 꼭 수집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이고(basic) 핵심적인(core) 장서 14,513권을 717,150,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 확충할 수 있기 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 추친 첫 해인 1989년에 구미 참고도서개발에 Books for College Libraries, Choice, Gale Catalog, Bowker Catalog 등의 저본을 활용하여 적용된 아래 그 추진이 지금까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계획 자체가 예산확보와 장서업무의 ‘주제화’를 전제로 수립되었던 것이기에, ‘주제화’ 사업 자체가 여러가지 사정에 부딪쳐 지지부진하게 되고 예산확보도 어렵게 되자 연동적으로 그 활성화의 길이 둔화되고만 것이라고 보여진다.²⁰⁾

5. ‘주제화’ 세미나 개최

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이 1988년에 끝이 나고 개혁의 바톤이 도서관으로 넘어온지 5년째가 되던 1993년 중에는 마침 당시 전문직관장의 리더쉽의 강점을 실려 도서관운영의 주제화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대학도서관업무 주제화 방안은 무엇인가?’와 ‘부산대학교 도서관 주제화의 청사진을 그린다-연구도서관·학습도서관 이원화와 관련하여’로 잡혔다.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모기관인 대학의 기본구조 속에 ‘전공학과’ ‘전공교수’ ‘전공학생’의 형태로 내재하는 주제성과 주제에의 요구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 분석에 근거하여 도서관이 자료수집업무, 자료조직업무, 이용자서비스업무에 있어서 주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도서관 선진국의 주제화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때 사례가 된 대학도서관은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ustin), 캔스اس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브리티ッシュ 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20) “부산대학교 도서관 기본장서개발계획, 1989-1999”. 도서관소식, 제2호(1990. 3), pp. 25-30.

British Columbia)의 도서관들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대학도서관이 주제화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는 업무상의 강점들이 예의 도서관들에서 수집된 각종 안내책자와 유인물을 통하여 소개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학도서관이 주제화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깊이와 폭, 그 소프트웨어의 정도에 접하고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²¹⁾

6. 자매대학도서관의 ‘주제화’ 사례조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자체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 본부의 지원하에 사서직원의 해외연수를 시작하게 된다. 1992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수를 경험한 사서직원의 수는 1995년 현재 8명에 이른다. 이들은 연수지에서 토탈시스템으로 가동중인 전산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앞서가는 대학도서관의 각종 제도, 의식, 관행에 노출되는 등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 물론 ‘주제화’의 전통에도 노출된다. 다음은 ‘주제화’와 관련하여 이들이 조사해 온 결과를 이들의 보고서에서 살펴본다. 두 곳만 소개해 본다.

-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연수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연수자들의 경험이 짐작되어 나타나 있다. 그것의 한 부분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다.

도서관 구성에 있어서 도서관이 다원서비스체제를 갖추어 자료별 중심

21) 부산대학교 도서관 발전기획 세미나시리즈

93년 제1차모임 : 일 시 : 1993. 1. 30(토) 10:00-12:00

주 제 : 대학도서관업무 주제화 방안은 무엇인가?

발표자 : 김정근(관장), 이수상(전산담당사서)

93년 제2차모임 : 일 시 : 1993. 2. 6(토) 10:00-12:00

주 제 : 부산대학교 도서관 ‘주제화’의 청사진을 그린다

— 연구도서관, 학습도서관 이원화와 관련하여

발표자 : 김정근(관장)

이 아닌 주제별 중심으로 되어 명실상부 주제전문도서관을 이루고 있었다. 아직까지 우리의 여전으로는 이러한 형태로의 전환조건은 전혀 허락되지 않으나 여전이 형성된다면 점차적으로 장서를 자료별로 구분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리하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²²⁾

연수자들이 조사해온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도서관의 다원서비스체계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먼저 연구도서관(Main Library), 학습도서관(Sedgewick Library), 주제도서관 8개관, 즉 아시아도서관(Asian Library), 점자도서관(Crane Library), 교육학도서관(Education Library), 법학도서관(Law Library), 농학도서관(Macmillan Library), 수학도서관(Mathematics Library), 음악도서관(Music Library), 생물의학도서관(Woodward Library)이 캠퍼스 전역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연구도서관(Main Library)에는 중앙서고(Main Bookstacks)를 중심으로 지도도서관(Map Library), 예술도서관(Fine Arts Library), 인문사회과학참고자료부(Humanities & Social Sciences Reference Division), 자연과학참고자료부(Science Reference Division), 정부간행물·マイ크로형태자료부(Government Publications/Microforms Division), 특수자료·대학사자료부(Special Collections/UBC Archives Division)의 6개실이 있다. 그리고 이들 전체 캠퍼스 도서관 구성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도서관정리센터(Library Processing Center)가 배후에 포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도서관자료의 수서, 정리, 전산지원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장서개발부(Collection Division)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6명의 장서개발전문사서(Bibliographer)가 영역별 자료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뉴사우스 웨일즈대학 도서관

22) 강태원·김수선, “우리는 UBC 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연수보고”, 도서관소식, 제4호(1993. 2), pp.111.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 웨일즈대학 도서관은 구미지역의 대규모대학에서 혼히 볼 수 있는 (예 :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여러 분관을 유지하는 분산형 운영체제와는 그 유형을 달리한다. 캠퍼스 중심부에 하나의 거대한 중앙도서관 (Main Library) 을 유지하며 이 중앙도서관 건물 안에 4개의 주제도서관(Subject Library), 즉 인문사회과학도서관(Social Sciences & Humanities Library), 과학도서관(Physical Sciences Library), 법학도서관(Law Library), 생물의학도서관(Biomedical Library) 을 배치하고 있다. 각 주제도서관은 참고서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비도서자료 등을 포함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이들 4개의 주제도서관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부서로서 장서관리부 (Collection Management) 가 있다. 그 산하에 장서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설 (Collection & Database Services) 이 있다. 여기서는 1인의 사서가 담당분야 자료의 주문에서 목록까지 한 책상에 2개의 터미널을 놓고 작업한다. 장서관리부 산하에는 그 밖에도 장서보존 · 유지(Collection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장서관리(Collection Management), 상호 이용처리(Document Delivery Unit), 그리고 일반복사(Unicopy) 를 담당하는 단위가 있다.²³⁾

7. 프리드만 보고서²⁴⁾

프리드만 박사(Dr. Maurice J. Freedman) 가 도서관전문가로서 USIA의 후원으로 부산대학에 와 머문 것은 1993년 5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었다. 이 기간동안 그는 대학구내의 외국인 숙소에 머물면서 도서관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오전 9시에 도서관으로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였다. 출근해 있는

23) 이수상. 김수진,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연수보고", 도서관소식, 제6호(1993. 11), pp. 67-92.

24) Maurice J. Freedman, "USIA Academic Affairs Specialist Report,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May 1-22, 1993", 도서관소식, 제6호(1993. 11), pp. 10-48.

동안 그는 도서관의 여러 전설적 계획과 당면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구석 구석을 돌며 일상의 업무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며 관찰하였다. 그는 도서관측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도서관자동화, 장서개발, 연구도서관·학습도서관 이원화계획의 세 영역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후 매우 허심탄회하고도 전문가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 의한 USIA Academic Affairs Specialist Report,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May 1-22, 1993 (일명 '프리드만 보고서')이 생산된 것은 그가 본직인 Westchester Library System의 관장직으로 복귀한 이후 가 되는 그해 8월이었다. 그가 보고서를 부산대학교 도서관으로 보내 왔을 때 도서관의 관계자들은 그 내용이 매우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음에 놀랐다.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의 도서관 사정을 본 것인데도 그 실체를 깨뚫고 들어가는 파악능력과 대안제시능력이 참으로 놀라웠다. 과연 도서관전문가 답다고 하는 것이 부산대학교 도서관 관계자들의 반응이었다.

프리드만 보고서는 모두 39쪽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매우 잘 쓰여진 문서라는 점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장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이해를 전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잡히지 않고 있다. 우선 부산대학교 도서관부터가 그렇다. 보고서를 처음 접하던 당시 몇몇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놀라워했을 뿐 그 뒤 이렇다 할 활용이 없는 것이다.

프리드만 보고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장서개발' 부분도 지금 다시 읽어보면 이제라도 견질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죽고 있는 '주제화'의 화두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실마리가 잡힐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한 그의 분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는 무엇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또는 국내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현재 취하고 있는 수서형태, 즉 교수진이 자료추천권을 행사하는 반면 사서진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 주문을 내보내는 형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것

이야 말로 도서관 뿐 아니라 부산대학교 자체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 형태 하에서는 핵심자료가 선정되어 도서관 서가에 꽂힐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 조정기능이 배제된다는 점과 이렇게 선정된 자료는 장서로서 대학전체의 교육, 연구, 발표를 위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이 이러했기에 기존의 장서에는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여러 주제영역에 걸쳐 심각한 갭이 나타나 있으며 불필요한 복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서진이 주체가 되어 핵심장서(core collection)의 개발에 최대의 역할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밀한다. 그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있어서의 핵심장서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첫째, 대학 학부수준의 커리큘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 걸쳐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세계의 고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것은 번역본으로도 수집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 원어로도 수집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부산대학에 활성화되어 있는 교육, 연구, 발표의 영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층 수준이 높은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사자료와 지역의 인사들이 펴낸 저작물이 망라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수진과 학생들의 활동과 관계된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한다.²⁵⁾

그는 핵심장서를 기본으로 깔고 장서에 체계성과 균형성을 가져 오려면 자료의 선정권이 교수진에게서 사서진으로 넘어와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교수진의 위치는 궁극적으로 자문적 역할(consulting and recommending role)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정책과 감독의 역할(role of policy and oversight)에 머무는 것이 적절하다는 표현도 사용한다.

그러나 그는 설령 대학의 총장과 교수진이 도서관장과 사서진이 자료의 선정과

25) 위의 글, p.17.

개발의 책임을 떠맡는 데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도서관의 수서인력구조로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책을 제시한다.

- 장서개발담당 부관장실을 신설하여 부관장과 차석을 임명하고 이들과 같이 일을 할 지원인력을 배치한다. 부관장(Assistant Director for Collection Development)은 이 대학도서관의 수서(acquisitions)와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업무의 전반적 정책수립과 그 실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평소에는 단행본 수서실을 관리한다. 차석(Assistant Collection Development Officer for Serials)은 부관장을 보좌하며 평소에는 연속간행물 수서실을 관리한다.
- 자료선정의 책임은 전문직사서 전원에게 1 내지 3개학과의 비율로 그 영역을 배분하여 담당케 한다. 장서개발담당 부관장실은 전문사서직에 의한 자료선정업무를 조정(coordination) 한다.²⁶⁾

8. 연구도서관-학습도서관 이원체제 확립

1987년 9월 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도서관신축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총장은 그 다음달 공고문을 통하여 “89년도 최우선 신규사업”으로 이의 추진을 약속한다. 총장은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연구비를 지급하여 도서관신축계획을 연구토록 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 지금은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최정태교수의 ‘부산대학교 도서관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연구’(1988. 3)²⁷⁾이다. 이 기본계획연구는 국내에서 나온 대학도서관건축계획 관련 연구로서는 일찌기 그 유례가 없는 본격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치밀한 참고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기초로

26) 위의 글, pp. 15-16.

27) 처음에 미간본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나온 이 자료는 그 뒤 다음과 같이 발표되어 외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최정태, “부산대학교 도서관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6집(1988), pp. 98-135.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 문서는 매우 획기적인 제안을 담는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 있다.

- 새로 지어질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고 정보봉사체제를 갖춘 연구 센터역할을 하며 개가제(open stacks)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현재의 중앙도서관은 ‘학부도서관’(undergraduate library) 체제로 전환하고 교재용 자료와 좌석이용을 위주로 한다.
- 규모는 연전평 20,000㎡(약6000평) 정도로 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며, 건축양식은 부산대학교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야 하고 장엄하며 캠퍼스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외벽은 가급적 석재를 사용토록 하고 지붕은 박공식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 건축에 필요한 총소요예산은 설계수준에 따라 다음 2가지 안으로 추정한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조성기 교수의 의견서)
 - ₩ 1,300,000 × 6,000평 = 78억원
 - ₩ 1,500,000 × 6,000평 = 90억원

이 연구는 1988년 3월 중 도서관발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총장에게의 보고절차를 거쳐 부산대학교의 공식문서화된다. 당시 총장은 그때의 정치사회적 기류 속에서 국내대학총장 가운데 ‘마지막 임명총장’이라는 핸디캡을 벗기 위한 업적쌓기의 품목으로 이것을 채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뛰게 된다. 나중 알려진 바로는 이 프로젝트는 당시 총장의 이 대학에 있어서 ‘최초의 직선총장’으로의 재임노력과도 관련을 가진 듯하다.

89년 12월 5일 기공식이 있었다. 애초 제안의 3분의 1 크기인 2,000평 규모, 30억 정도의 투자로 철근콘크리조, 평지붕, 석재외벽의 건물로 후퇴된 것이었다. 이 건물이 완성된 것은 그로부터 약 5년 뒤 1994년 9월이었다. 완성된 건물은 그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이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기 보다는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다. 준공 전에 교내 여론 때문에 용역단체에 의한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판국이었다. 창틀이 뒤틀리고 물이 새는 등 그야말로 날림공사였다. 이것

이 다 한국의 현실인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캠퍼스를 관통했다. 용을 그리려다가 지렁이를 그린 꼴이라고나 할까. 이 그림에는 이 대학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담당부서인 시설과의 무지와 무능이 적나라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사서진의 뜻이다. 1994년 9월 5일 개관과 더불어 새 건물은 '연구도서관'으로 명명되었다. 구건물에는 '학습도서관'의 간판이 붙었다. 이것이 부산대학교에 있어서의 도서관서비스 이원화시대의 개막이었다. 이것은 국내에 최초의 사례를 제공하기도 했다.

연구도서관은 교수진, 석박사과정의 학생 등의 연구자들을 주고객으로 상정하여 수준이 높은 '연구성'자료를 수장한다. 학습도서관은 대학생들을 주고객으로 삼아 교양용 교재용 자료, 과제해결을 위한 자료 등 '학습성'자료를 수장한다. 성격이 뚜렷이 다른 두 도서관이 캠퍼스 내에 생겨나려면 기존자료의 구분작업이 완성되어야 하며 새로 입수되는 자료의 구분정책도 더욱 세련화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도서관이 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있어서 그 업무의 '주체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기가 여기에도 숨어 있는 것이다.²⁸⁾

9. 주제도서관 증축프로그램 연구

지금 부산대학교 캠퍼스에는 완성되어 개관을 본 2,000평짜리 연구도서관의 증축논의가 한창이다. 애초 계획대로 4,000평을 추가하여 6,000평으로 만드려는 노력이다. 이 논의는 사실 연구도서관의 규모가 2,000평으로 축소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1995년 4월 25일에는 교무회의에서 '96년 신규사업 우선순위 3위'로 결정이 되어 교육부에 보고되기도 한다. 1995년 9월 새 총장이 취임하였을 때 도서관측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의 추진을 건의하기도 한다. 증축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건물의 규모가 처음의 계획대로 6,000평으로

28) 김경희 등, "이전준비 이렇게 되고 있다", 도서관소식, 제4호(1993. 2), pp. 4-30 ; "연구도서관 개관", 도서관소식, 제7호(1994. 12), pp. 74-76.

커졌을 때를 상정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는 문서도 몇가지 생산되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종축프로그램 설계 – 주제도서관을 구상하여(1994)²⁹⁾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도서관건축계획론’(담당교수 최정태, 1993년 2학기) 시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점을 받기 위하여 공동연구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공동연구자는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이수상, 류준정, 장덕현, 이영빈, 김수경, 이연옥, 오영아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책임없는’ 논고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도 전문적으로 쓰여져 있어 앞으로 책임있는 관련자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할 때 참고소스로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듯하다. 이 연구의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거대한 단일 도서관 속에 작은 주제도서관을 구상하여 자원통합에 유리한 경제적 구조를 제시한 부분이다. 즉 연구자들은 별개 건물의 복수의 주제도서관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일의 큰 건물 속에 5개의 주제도서관을 앉힐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큰 도서관 속의 작은 도서관(libraries within a library)으로 인문 사회과학도서관, 순수기술과학도서관, 어문학도서관, 예술도서관, 법학도서관을 꼽고 있다. 6,000평의 규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 부산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종축계획연구 – 연구도서관의 확충방안(1995. 9)³⁰⁾

이 문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산대학교 전자계산소가 공동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이다. 1995년 12월 현재 대학본부에 연구진행을 위하여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제안서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 연구는 역시 6,000 평을 전제로 “주제별도서관(subject library),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열

29) 이수상 등,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종축프로그램 설계-주제도서관을 구상하여”,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제4집(1994. 2), pp.59-85.

30) 부산대학교 도서관·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부산대학교 전자계산소, 부산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종축계획연구-연구도서관의 확충방안(1995. 9). 미간본자료.

린도서관(open library)의 세가지 개념을 복합화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학술정보센터로서의 리엔지니어링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가 대학본부의 지원 밑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고서화 되었을 때 이 대학이 요구하는 주제도서관의 내용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계획은 현재 교내에서 ‘21세기형 연구도서관 계획’으로 불리고 있다.

10. 직제개편 세미나 개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수서업무, 선정업무, 장서개발업무의 주제화를 포함한 도서관의 전체 운영의 주제화를 향한 길고 긴 논의와 담론의 끝에 직제개편을 위한 세미나가 위치해 있다. 이 세미나는 최정태 부관장의 기획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1995년 가을학기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매번 약 20명의 사서직원들과 문현정보학과측의 참여 속에 하루종일 진행된 이 모임은 아이디어 교환, 계획, 실행팀의 사전연수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 1차 세미나

1995. 10. 26(목) 10 : 00-16 : 00 연구도서관 세미나실

이 모임에서는 전남대학교 도서관이 1995년 1학기를 기해 단행한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자료와 서비스 포인트의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논의는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서관 관리진과 실무진, 문현정보학과측에서 모두 9명의 관계자가 각각 하루동안씩 전남대 도서관현장을 방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전남대 도서관 직제개편의 핵심은 One-Person-Library의 확립이라고 파악되었다. 즉 전남대 도서관은 유자격 사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복수의 남당학과를 부여하고 그 사서로 하여금 해당학과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수집, 정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 바 이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관찰된 것이

다. 논의는 주로 이것의 장단점에 대하여 집중되었다. 논의 가운데서 전남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된 것은 도서관의 직원들이 연공서열과 상하구분 없이 공평하게 업무를 분담한다는 부분이었다.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이와 같은 조직에서는 경력사서들의 업무해석능력과 관리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학도서관 업무 가운데 어떤 부분, 특히 장서개발과 같은 업무는 1인의 사서에게 정리, 서비스 업무와 함께 통합적으로 부여되었을 때 학과의 요청을 중계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고 참다운 의미에서의 사서가 주도하는 장서개발업무로의 심화발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 2차 세미나

1995. 12. 14(목) 10:00-16:00 연구도서관 세미나실

이 모임은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직제를 현행의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체제에서 서무과 수서정리과 자료운용과로 바꾸자고 하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건의안, 현재 직제개편을 고려 중인 경북대, 경상대 도서관 등의 개편안과 1차 세미나 이후 사서직원 각자가 생각한 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이 도서관의 현행 수서업무가 주문과 검수업무에 그치고 있어 사서주도의 선정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 장서평가, 핵심장서구성, 보존, 제작업무, 협력까지를 망라하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장서개발업무를 전체로 한 조직개편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제안자는 그런 뜻에서 서무과, 자료조직과, 자료개발·운용과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발과 운용의 업무상 근접성이 축안한 안이었다.

지금까지의 긴 논의가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1987년 가을학기에 일어난 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의 충격속에서 진행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의 일련의 업무개발 논의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위에서 보듯이, 그것은 이제 와서 정리해 보면 장서업무의 주체화를 포함한 도서관 전체 운영의 주체화라고 하는 하나의 꼭지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장서개발업무의 주제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논의는 충분히 축적된 상황이 아닌가. 그동안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나름대로 장서개발업무의 주제화를 포함한 도서관 전체 운영의 주제화 문제를 꾸준히 말하며 고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실행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준비는 무르익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러 갈래로 진행되어 온 논의와 부분적 실천들을 어떻게 한가지로 조정, 통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여기서 한가지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를 느낀다. 장서개발이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는 듯이 보인다. 선정, 수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에 따라 섞어 쓰기도 하고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구분하는 경우 그 경계선이 일정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다음과 같이 가닥을 잡은 뒤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은 한편으로는 수서(acquisitions)와 구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정(selection)과 구분된다. 장서개발은 그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책입안 기능(policy-making function)을 가리킨다. 그래서 장서개발계획으로부터 자료비 배분, 보존, 제작, 평가, 협력과 같은 장서관련의 정책적 활동이 나오는 것이다. 선정은 장서개발의 직접적 실행 기능으로서 개발계획에서 설정된 목표 실행과 관련된 결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서는 다시 선정 결정의 실행 과정으로서 실제로 자료를 도서관으로 수집해 들이는 과정을 말한다.³¹⁾

나 자신 그 동안 위에서 살펴본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업무의 주제화 논의에 참여와 관찰을 꾸준히 해온 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산되어

31) 이 개념들의 규정은 다음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Hendrik Edelman, "Selection Methodology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23(Winter 1979), p. 34 ; Ross Atkinson, "The Conditions of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 A new Treatise*, Vol. 1, Charles B. Osburn and Ross Atkinson, eds. (Greenwich, CT : JAI Press, 1991), pp. 29-48.

나온 문서들도 부지런히 읽어 왔다. 그려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쟁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장서업무에 관계하는 일부 실무사서진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듭 거듭 제기되는 문제였다. 그것을 위에서 정리된 개념에 따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³²⁾

- 지금 도서관의 장서업무 가운데 사서진의 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주문 (order)과 검수(checking)가 중심이 되는 수서업무(acquisitions)뿐이다. 이것이 업무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도서관 전문직운동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 선정업무(selection)는 그 권한의 대부분이 교수진의 손에 가 있다. 이것이 업무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도서관 전문직운동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 기본장서개발, 기존장서평가, 보존, 제작, 협력과 같은 정책적 고려 하에 진행 될 수 있는 장서개발업무(collection development)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업무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도서관 전문직운동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사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그 동안 실험과 실수를 거듭하면서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또는 도서관 전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담론을 구성하고 변화를 시도한 이면에는 이와 같은 도서관 전문직들의 직업적 애착과 그들의 직업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과연 현재와 같은 틀 속에서 일이 제대로 될 것인가, 또한 사서주도성의 원칙이 견지될 수 있겠는가를 끊임없이 물어 온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직업적 애착(professional affection)과 주도성과 관련된 자의식(self-consciousness)의 요소는 실무사서진 속에서만 발견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도서관의 자료선정에 있어서 거의 절대권을 쥐고 있는 교수진을 포함하는 이용자 그룹에게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2) 실무사서진의 업무전문화 내지 업무주도성 관련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정, “현장사서의 시각에서 본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의 다음단계의 과제”, 연구보조원 메모랜드(1994.9), 미간본자료 ; 손정, “외전서”, 도서관직제 문제에 따른 제2회 세미나 발표자료 (1995. 12. 14. 부산대학교 연구도서관), 미간본자료.

우리는 이와 같은 실무사서진의 미세한 움직임이 그 자체로서 과연 정당한가. 이 움직임은 이 나라 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있어서 어떤 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것은 도서관 발전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어떤 보편성을 가지는 것인가를 묻고 답해야 한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수서업무(acquisitions)에 있어서 사서주도성이 확립되고 사서진에 의한 도서관적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니다. 1987년 가을학기의 개혁운동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은 주문을 포함한 수서권의 대부분이 행정사이드에 가 있었다. 그때 수서 과정에 있어서 사서의 일이란 고작 목록을 만드는 '대서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도서관 자료(library materials)는 행정사이드에 의해서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의 계약, 공개 입찰, 수시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acquire)되었던 것이다. 그 사이 수서 과정에 의한 사서진 개입 정도의 추이는 이 업무에 투입된 사서 인력의 규모면에서 우선 여실히 드러난다. 1987년 개혁운동 당시 수서실에는 단행본 파트와 연속간행물 파트를 통틀어 주무급 사서 1사람과 평사서 3사람이 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7년 반 후가 되는 1995년 겨울 현재 단행본 수서실에는 주무급 1사람과 다른 4명의 전문직 인력과 1명의 비전문직 인력이 일하고 있다. 별도의 연속간행물 수서실에는 1명의 주무급 사서와 다른 5명의 전문직 인력이 일하고 있다. 수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이드는 회계 업무만 담당하며 나머지 일체의 도서관적 업무는 사서진의 몫으로 되어 있다. 이제 업무의 복잡성과 사서진의 고양된 의식은 90년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사서진의 개입이 수서 업무에 한정되는 구조에 대하여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³³⁾

선정업무에의 사서진의 개입(professional intervention) 내지는 주도권 확립(establishment of supremacy)은 정당한가? 그리고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단초는 현행의 교수추천제가 가지는 문제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듯하

33) 이상재 등, 앞의 글 ; 유익봉 등, 앞의 글.

다. 그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는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무성한 말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³⁴⁾

- 다수의 교수는 자료 추천에 무관심하다. 추천을 하더라도 조교나 대학원생들에 의한 대리 추천을 하는 등 매우 무성의하다. 대리 추천의 경우 추천자의 학문적 전문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 추천에 응하는 개별 교수는 자신의 당장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추천한다. 물론 자신이 보유한 자료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에 추천하지 않는다.
- 교수추천제에 의한 도서관의 자료 구성은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의 요구에 대비 한 망라성, 체계성,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다. 장서의 성장은 지그재그형으로 진행된다.
- 교수추천제 하에서는 연구와 학습활동을 기본적으로 떠받치는 핵심장서 (core collection)가 구축될 수 있는 기회가 근원적으로 배제된다.

위의 사정으로 미루어 선정업무에 사서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마침내 교수진으로부터 선정권 자체를 이양 받음으로써 그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립하는 데는 담위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듯이 보인다. 다만 문제의 촛점은 이 단계에서 교수진이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와 사서진이 양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두 지점으로 모아진다. 이것은 다시 뒤에서 다루게 될 사서진의 ‘주제화’업무구성 정도와 교수진에 대한 설득의 과정로 연결된다. 사서진의 선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프리드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 체제에서는 도서관 전문직에 의해 조직되고 통제된 형태의 장서개발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있어서의 장서개발 방안에 관하여 말을 해보려고 하니 우선 어안이 벙벙해진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도서관 뿐 아니라

34) 손정사서, 신주영사서와의 인터뷰(1995. 12. 14.).

대학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³⁵⁾

프리드만 보고서의 또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도 파악되어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적정한 수준에서 포괄성을 떠는 핵심장서를 보유하게 되려면 선정에 있어서 교수진의 장악 정도가 감소되어야 한다. 그들의 통제권은 궁극적으로 자문과 견의의 기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수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서진이 대학의 전반적인 우선 순위에 따른 교수진의 연구, 발표, 교육과 관련된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선정업무를 일관성 있고 계획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사서진의 책임이다.³⁶⁾

마지막으로 장서개발업무의 본격화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이 도서관 업무의 성질상 타당한가. 그리고 이것이 도서관 전문직운동의 원리와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자명한 듯이 보인다. 장서에 대한 기획적 업무가 과연 지금처럼 경시되어도 그 결과물인 장서는 망라성, 체계성,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장서가 과연 이용자의 요구 수준에 적절한지 아닌지 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기본장서 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우며 그 실행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보존, 제작, 협력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세우며 그 실행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모든 과정이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수행되지 않고 방기된 채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사서진은 과연 전문직임을 자처할 수 있을 것인가?³⁷⁾

위의 논의의 귀착점은 어디인가? 그것은 도서관 밖이 아닌 도서관 안에 누군가가 있어 그들이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장서개발 업무를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조직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구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바깥

35) Freedman, 앞의 글,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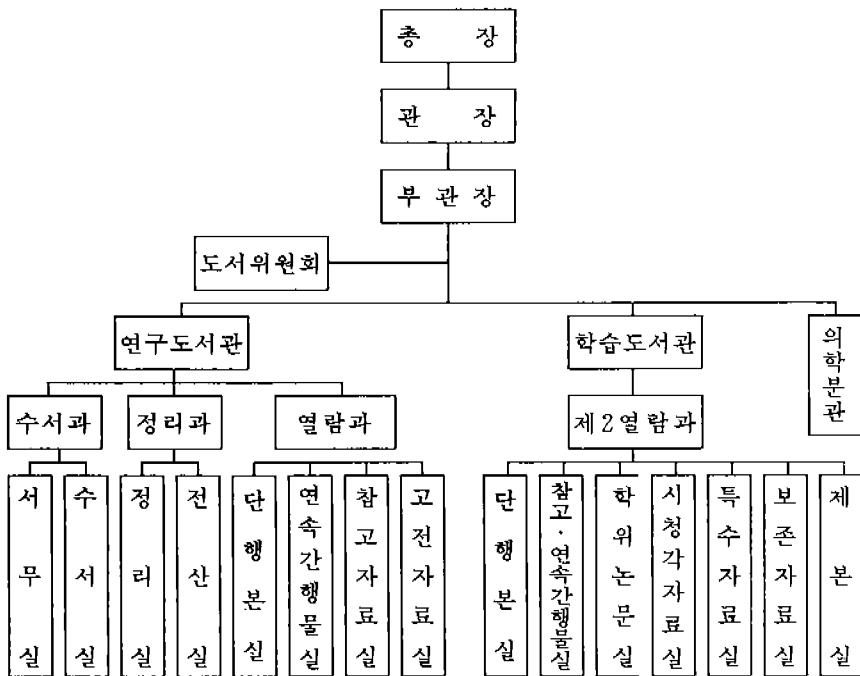
36) 위의 글, p. 43.

37)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 한울, 1995), pp. 70-145 참조.

에 나가 있는 자료 선정권 또한 조만간에 도서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도서관 내적 준비와 관련된 구상도 요구된다. 누가 이 일을 담당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법은 앞장의 긴 주제화 논의 가운데 사실 그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도서관의 실무진들이 그 동안 나누어 온 길고진 이야기 속에 해법의 큰 부분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다. 해답을 바깥이 아닌 안에서 구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 도서관이 현재 도달해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의 현단계 위에 지금까지의 주제화 담론을 포개어 얹었을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의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우선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현행 조직표를 소개해 둔다.

〈표 1〉 부산대학교 도서관 조직표



장서개발업무의 주제화 방안 7개항³⁸⁾

- 장서개발팀을 새로 구성한다. 팀장 밑에 다음과 같이 주제별 장서개발담당사서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 ; Bibliographer)를 둈다.
 - 연속간행물담당사서
 - 인문과학담당사서
 - 사회과학담당사서
 - 순수기술과학담당사서
- 장서개발팀의 지위는 독립된 과 단위일 수도 있으며 다른 과나 부서의 하위단위 일 수도 있다. 후자의 방법을택할 경우 부관장실, 수서정리과(계획중), 자료 운용과(계획중) 중 한 곳에 위치시킬 수 있다.
- 장서개발팀은 장서업무 가운데 정책적인 부분을 전담한다. 즉 예산배정, 기존장 서평가, 기본장서개발, 보존, 제작, 협력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자료의 관내 위치를 규정하는 자료구분업무도 관掌한다.
- 장서개발팀은 지금의 단행본 수서실업무 가운데 개발관련 업무(예 : 예산배정, 전공학과와의 협의)를 흡수한다. 그 나머지 주문, 검수, 등록업무를 중심으로 한 수서업무는 수서정리과로 넘긴다.
- 장서개발팀은 지금의 연속간행물 수서실업무 가운데 개발관련업무(예 : 전공학 과와의 커뮤니케이션, 타이틀 타당성 조사, 감종과 증종)를 흡수한다. 그 나머 지 주문, 체킹, 등록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수서업무는 수서정리과로 넘긴다.
- 자료선정업무는 원칙적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는 주제도서관(예 : 인문사회과학 도서관, 어문학도서관, 순수기술과학도서관)의 지정된 전문직사서가 수행한다. 이들을 선정담당사서(Selection Librarian)라고 부른다. 선정담당사서는 교수 추천제가 지속되는한 그것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한다. 자료개발담당사서는 선정

38) 이 7개항의 안출처에 이 연구의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이수상, 손정, 신주영, 이용재, 김종성 사서들의 의견이 수렴된 바 있다.

담당사서와 협조하며 그들의 업무를 조정(coordination) 한다.

- 수서정리과의 전문직사서들은 동일인이 동시에 배정받은 주제분야의 자료에 대한 수서담당사서(Acquisitions Librarian)가 되며 정리담당사서(Processing Librarian)도 된다.

이상이 내가 구상해 보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장서개발업무와 그와 연관된 다른 분야 업무의 주제화 방안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제별 장서 개발담당사서제의 설치이며 다른 하나는 주제별 선정담당사서제의 설치이다. 다른 항목은 이 두 항목의 도입에 따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V. 글을 끝내며

주제화(subject division)는 전문화(specialization)이다. 지금 부산대학교 와 국내의 다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업무조직은 기능조직이다. 수서기능, 정리기능, 서비스기능을 하나씩의 기능으로 보아 따로 둑어 놓은 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 이 조직체계는 지금까지 이 땅의 대학도서관이 성장 발전해 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보면 그것은 이용자 중심이 아닌 도서관 중심의 조직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의 요구가 지금처럼 드세어지기 이전, 그들의 요구가 지금처럼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기 이전 시기에 타당성이 있었던 조직체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이용자 중심의 조직체계로 바꾸어 가야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상대적 둔감과 비조준성(unaimed)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체계에서 그것에의 민감성과 조준성(aimed)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체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까지 보다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전문화로의 지향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오는 도서관기술적 화두가 바로 ‘주제화’인 것이다. 장서개발업무의 주제화는 도서관 전체 운영의 주제화 개념의 하위 개념을 구성한다.

이 글을 끝내며 장서개발업무 주체화논의의 전제가 되며 장서문제의 핵심으로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오우너쉽(ownership)과 액세스(access) 문제에 관해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장서개발문제를 올바르게 개척해 갈에 있어서 혼란과 노이즈의 소지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독립된 논제를 구성할 정도로 복잡성을 띠는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오우너쉽에 역점을 둔 이 글의 진행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우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문제점만 지적해 두기로 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92년 말경이었다. 그 날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발전기획반이 주관하는 도서관 직원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는 UBC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연수보고’로 되어 있었다. 앞에서 이미 소개된 것처럼 두 사람의 도서관 직원이 6주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회를 가지는 자리였다. 보고회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동료사서들이 외국에 나가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정보에 접하고서는 흐뭇한 기분이 되는 듯했다. 두 사람의 보고가 끝나고 이어서 자유토론시간이 있었다. 토론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보고자 가운데 한 사람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슬쩍 지나갔다. “UBC도서관에서는 저널을 감종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한 2,000종 줄인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돈도 비싼데 저널 더 살 필요 없겠어요. 우리도 좀 줄여버립시다.”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이 좀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즉석에서 나는 UBC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인데 우리가 무턱대고 그들처럼 따라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정도로 주를 달아 주었다. 물론 이런 정도는 단기간의 해외연수자로서는 능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다. 일시적인 판단착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 또는 사고의 유형이 사실은 우리 도서관계 전체가 안고 있는 큰 문제와 연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95년 12월이었다. 그 날도 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주관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도중 어느 대목에서 한 사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번 서울 가서 어느 도서관에서 온 사서 한 사람을 만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도서관은 책 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온라인으로 다 구할 수 있는데 뭣하러 책 사느냐는 거지요.”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역시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즉석에서 사람들이 이 무엇을 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 건너 뛰려고 한다는 요지의 주를 달고 넘어 갔다. 나는 이 경우도 사서 개인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한번쯤 저질러 볼 수 있는 판단의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혼돈의 시대에 무슨 생각인들 한번쯤 못가져 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여기서도 내가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유형의 사고가 실은 우리 도서관계가 지금 안고 있는 큰 유형의 혼란과 판단착오 현상에 연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그런가? 과연 이제 도서관은 더이상 책을 안 사도 되는가? 저널을 감종해도 되는가? 내가 그 뒤에 조사해 본 바로는 UBC대학 도서관은 그 당시 보유 저널타이틀 24,000종 가운데 2,000종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었다. 그것도 협력망을 통한 보완조치가 완벽하게 취해진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계획이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지금도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말이 있던 1992년 당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구입 연속간행물 종수는 고작 1,892타이틀이었다. 결호율이 높은 수증자료까지 합한 총종수가 정확히 2,837타이틀이었다. 거기에도 우리의 경우 협력망이 크게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무엇을 믿고 저널 종수를 줄인다는 말인가? 나는 이것을 너무 건너 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책을 안사도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같은 브리티ッシュ 컬럼비아대학 도서관의 예를 들어보자. 이 도서관은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108개 회원 도서관 가운데 종합순위가 중상위권에 머무는 도서관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대규모 대학도서관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위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대학은 자매대학 관계에 있다.) 장서수를 보자. 1992년 당시 이 도서관의 장서는 이미 300만권을 넘어 서 있었다. 거기에도 연평균 10만권 이상

을 추가하고 있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어떠한가? 고작 60만권을 헤아리고 있었다. (복본이 많아 타이틀로 치면 20만 정도였을 것이다.) 증가율은 연평균 2만 권 미만이었다. 그래도 책을 안 사도 되겠는가?

나는 위에서 사례를 주변의 쉬운 곳 사소한 데서 구해 보았다. 뜬구름 잡는 소리의 사례는 사실 큰 데서 구하면 더 많다. 이 나라 문헌정보학계의 공식 학회들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이다. 90년대 들어 학회 모임에 참석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거기에 가보면 ‘도서관’(library)에 대한 폐배주의와 더불어 ‘장서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서와 담론이 장내를 도도히 흐르고 있지 아니하던가.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오우너쉽(ownership)을 기초로 하는 장서(collection)에는 이에 관심도 없고 온라인, 디지털 라이브러리, 페이퍼레스 라이브러리만 외쳐댄다. 액세스(access)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이다. 도서관이 아주 바닥에서 기고 있으며 장서가 왜소하기로 이를 데 없는 이 땅의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들 있을까. 나는 저으기 궁금해진다. 사실 이 문제는 학문의 식민성³⁹⁾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좀 더 정치한 논구가 요구되는 큰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자리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우선 손에 잡히는 몇가지 원인 같은 것을 짚어 보고 넘어 갔으면 한다. 왜 사람들은 장서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으며 이처럼 피상적으로 뛰는가? 왜 그들은 서양사람들보다도 더 높이 뛰어 오르는가?

우선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피상성은 이들의 외국어 원서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나라의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은 외국어 서적, 특히 영어 원서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올바르고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려면 그 한가지 요건으로 적절한 영어 원서와 아티클들을 골고루 편벽되지 않게 그리고 정확히 읽어낼 필요가 있다. (반드시 많은 양을 읽을 필요는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말같이 그리

39) 김정근, 앞의 책 참조.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무엇이 적절한 자료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 내용이 한국의 사정에 비교적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한국사람이 외국어 읽는 테는 고통이 따르며 또한 너나 없이 읽는 속도가 뻔한 형편이므로 골라서 제한된 페이지수를 제한된 시간에 읽을 수 밖에는 없을 터인데 어떻게 골고루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읽어내느냐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 역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정확히 읽는다는 것 보다 어떻게 의미론적으로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와서는 사실 ‘자신’을 말할 사람이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도서관 문장은 언어적 의미를 뛰어 넘어 문화적 의미를 띠고 있기가 일쑤이기에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 낸다는 일이 그야말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가용한 영문문헌이 좀 많은가. 그 많은 문헌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적절한 자료를 골고루 골라 정확히 읽어낼 것인가. 이 글의 키워드인 장서 개발 분야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만 일년에 평균 300편 이상의 중요한 논저가 쏟아져 나온다.⁴⁰⁾ 보통일이 아닌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다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이 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본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이 영어실력이 없어 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흄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문제는 걸려 넘어진 사람이 부적절한 자료를 편벽되게 부정확하게 읽고서도 큰소리치며 담론형성자 구실을 하려는데 있는 듯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학문의 현장에 있어서 사이비성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과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오우너쉽 대 액세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내의 문헌 가운데 적절한 참고문헌이 선정되고 그것들이 편벽되지 않게 고르게 그리고 정확히 소화가 된 바탕위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경우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증거가 좀체 짊하지 않는 것이다. 서양의 문헌을 골고루 정확하게 읽어 보라. 그 어디에 지금

40)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의 “annual reviews of the work on collection” 참조

이 땅에서 일고 있는 것과 같은 전자도서관이나 액세스에 관한 ‘환상’과 ‘광기’가 보이던가? 튼튼한 기초가 바탕이 되었을 때 논의는 자연 무겁고 적실성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기초가 바탕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령 대학도서관의 장서문제가 논의가 되니 가벼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전자’ 하면 뛰게 되고 ‘액세스’ 하면 또 뛰게 되는 것이다. 뛰다 보니 재미가 불어 오히려 미국사람들 보다도 더 뛰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⁴¹⁾

다른 한가지 왜 이 땅 문헌정보학계의 다수 담론형성자들이 소장과 접근의 논의에 있어서 가벼워지고 피상성을 띠게 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발전 ‘단계’(stage)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참고문헌을 제대로 찾아 읽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의 연구자들은 한편 허위위식에서, 다른 한편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서양의 문헌에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고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학문적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양의 동서에 놓인 현장들의 ‘단계’에 대한 혼란과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양문헌을 자꾸 읽는 사이에 그것에 중독

41)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장서개발 문제와 그에 따르는 액세스 대 오우너쉽 문제를 균형 있게 논의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먼저 읽고 소화해 내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단행본 :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A Treatise*, Robert D. Stueart and George B. Miller, eds., (Greenwich, CT : JAI Press, 1980), 2 vols. ; William A. Katz, *Collection Development: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Libraries*(New York : Holt, Reinhart and Winston, 1980) ; Robert N. Broadus, *Selecting Materials for Libraries*, 2nd ed. rev. (New York : Wilson, 1981) ; Richard K. Gardner, *Library Collections: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New York : McGraw-Hill, 1981) ; Arthur Curley and Dorothy Broderic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6th ed. rev. (Metuchen, NJ : Scarecrow, 1985) ; G. Edward Evans,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2nd ed. rev. (Littleton, CO : Libraries Unlimited, 1987) ; David Spiller, *Book Selection*, 5th ed. (Chicago : ALA, 1988) ; Rose Mary Magrill and John Corbin, *Acquisitions Management and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2nd ed. rev. (Chicago : ALA, 1989) ; William A. Wortman, *Collection Management: Background and Principles*(Chicago : ALA, 1989) ; *Collection Management: A New Treatise*, Charles B. Osburn and Ross Atkinson, eds., (Greenwich, CT : JAI Press, 1991), 2 vols.

연간물 :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 *Collection Management* ; *Collection Building* ; *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and Theory*.

현상을 일으켜 서양의 문헌이 전제로 하고 있는 서양의 도서관 현장과 이 땅의 도서관 현장을 마치 동일하거나 유사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차각에 빠져 들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학도서관’(university library), ‘장서’(collection), ‘소장’(ownership), ‘접근’(access) 따위의 표현을 양의 동서에다 대고는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틀린 전제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같이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고문관’(advisor) 학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그리고서도 어떻게 책임 있는 ‘주체’(central forces)의 학문이 될 수 있겠는가? 서양의 도서관은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 자체의 발전유형, 리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서양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도서관은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 나름의 발전유형, 리듬,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 특수성의 요소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특수성, 즉 고유한 발전 단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고서는 담론은 현실로부터 겉돌고 말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맹점이기도 한 것이다. 대상의 특수성에 대한 분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념을 구사하여 ‘우리도 서양처럼 되자’ ‘서양을 따르자’라고 해 보아도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액세스 대 오우너쉽 문제도 서양의 문헌이 갖다 대어주는 줄에 따라 풀썩 뛰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나름의 준거의 줄을 마련하여 거기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뛸 만큼 뛰어야 한다는⁴²⁾ 것이다.

현실이 비참할수록 사람은 미래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신의 상태가 몽환적, 환상적이 되는가. 나는 요즘 우리 문헌정보학계의 담론 현장에 부쩍 고개를 쳐드는 ‘21세기 도서관’, ‘미래 도서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오늘의 준비가 없는데 내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현실의 기반이 없는데 미래가 어디에 있겠는가. 거지 꺽다리 셋이서 다리 밑에서 소주 한 병씩을

42) 김정근, 앞의 책 참조

비우고 ‘세상은 우리의 것’, ‘내일은 우리의 것’이라고 고함을 쳤다고 치자. 이튿날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과연 ‘세상은 우리의 것’, ‘내일은 우리의 것’이 되어 있겠는가. 나는 어려운 때일수록 연구자들은 오늘 이 땅의 도서관 현장에 밀착하면서 그것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그 현장과 함께 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21세기적’도 아니요 ‘미래적’도 아닌 ‘현실론적’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 땅의 문현정보학 연구자 가운데는 의외로 환상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그들은 종교적 풍상가들의 행태와도 같이 한편 눈 앞의 현실은 외면하고 다른 한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집착한다. 그 집착에는 광기의 요소도 있는 듯하다. 서양의 저자들 가운데도 아류들은 혹세무민하는 축이 많다. 그들은 데마고그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의 연구자들 가운데는 데마고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반면 서양의 저자들 가운데도 자기네 사회의 도서관 현장에 대하여 책임있는 발언을 하는 주체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네 사회뿐 아니라 남의 사회의 특수성에 까지 리더쉽의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 땅의 도서관 당사자들이 매양 데마고그들에 현혹될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진지한 저자들을 힘써 발굴하고 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글의 사례가 된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포함한 이 땅의 대학도서관의 장서 개발 문제가 오우너쉽이 축이 되며 액세스가 보조적 위치에 서는 구조 속에서 해법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업무의 ‘주제화’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의 맞춤성(tailoring) 또는 조준성(aiming)의 의미를 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과업의 수행과정에 자꾸만 도서관과 장서자체의 죽음을 속삭이는 노이즈가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이즈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내가 근래 찾아낸 서양의 진지한 저자 두 사람을 인용해 두고자 한다.

독서는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중요하다. 종이매체는 지식습득을 위한 지속적 독서를 위해서는 최상의 수단이다.⁴³⁾

컴퓨터는 데이터나 적은 패킷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아직 독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두세 패러그라프 이상되는 길이의 텍스트를 읽는 데는 종이매체가 단연 선호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⁴⁴⁾

거의 모든 도서관들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긴요한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인쇄물과 다른 매체로 구성된 풍부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풍부한 실물장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일 뿐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성공적인 미래도서관들은 원격자원에 대한 접근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실수요를 충족시키며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수용하는 실물장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실물자료(그리고 비실물의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접근을 활용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 비용, 혜택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서들과 도서관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의 자료와 자원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가지의 획일적인 해결책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특히 모든 도서관자원은 전자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따위의 우스꽝스러운 생각은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소장과 접근의 공존 시대인 것이다.⁴⁵⁾

43)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and Reality*, (Chicago : ALA, 1995), p.13.

44) 위의 책, p.18

45) 위의 책, p.181.

A Study on Collection Development Model for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Based on Subject Approach*

Jung-gun Kim**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at developing an organizational model for collection development applicable to Korean university libraries at their present stage of development. An emphasis is placed on the discussion of the 'subject approach' as compared to 'functional approach' in collection development work. The case history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s extensively used.

The proposed collection development model consists of the following elements :

- To form a collection development team and to place under the team leader subject bibliographers as follows :
 - Bibliographer for Serials
 - Bibliographer for Humanities
 - Bibliographer for Social Sciences
 - Bibliographer for Sciences and Technologies
- Collection development team could operate as a separate department

* This paper was supported(in part) by NON DIRECTED RESEARCH FUND, Korea Research Found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or as part of other departments, i. e., Deputy Director's office, Acquisitions and Processing Department, or Resources Management Department.

- Collection development team takes up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related collection work, i. e., budget allocation, evaluation of existing collection, building core collection, preservation, weeding and cooperation.
- Designated certified librarians located at the (planned) subject libraries take up the responsibility for selection. Subject bibliographers cooperate with selection librarians and coordinate their work.
- Certified librarians at the Acquisitions and Processing Department are assigned subject areas. They operate as acquisitions librarian and processing librarian simultaneously with their assigned subject materials.